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일 예배 2026년 6월 21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다 감사드리세 / 찬송가 66(신) 20(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45번(시편 103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구주를 생각만 해도 / 찬송가 85(신) 85(구)

기도 / 한미숙 권사

성경 봉독 / 마가복음 12장 28-34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정답을 가진 사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밖에 선 사람 / 박화신 목사

찬송 /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 찬송가 415(신) 471(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바다와 하늘의 주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신앙의 가장 위험한 착각은 모르는 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옳은 말을 하고, 익숙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붙잡은 답보다 그 답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2. 예수님 앞에 선 서기관은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아니라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움은 귀하지만, 가까움이 들어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서 있는 것과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복음은 우리에게 더 많은 정답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았듯이, 우리 역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 설교 요약

다시 제자리로

롬 3:10-24

1. 죄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질서가 깨어진 상태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욕망을 앞세우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2. 깨어진 질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순간순간의 선택들은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존재 전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3. 복음은 우리에게 “더 노력해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너진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 가십니다.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4. 그러므로 신앙의 길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금요성경공부 사도행전 잘 마쳤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6월 목장 모임을 6월 27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연합 목장 모임으로 박래석 집사님 자택에서 모입니다. 집을 오픈해 주시는 박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 6월 예배 위원

안 내	조창	박승화		
기 도	한정임(7)	한규철(14)	한미숙(21)	조창(28)

##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 믿는다는 착각

마가복음 12:28-34



##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옳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 가깝지만,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아니라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앞에서 있는 것과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말씀 앞에서 나를 봅시다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았듯이, 우리 역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마가복음 12:34

